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1997년도부터

세례식은 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교육 및 문답에 충분한 시간 배정
온 성도의 축하 속에 세례식 갖는 것이 중요
1년에 4차례 실시 - 2/16, 5/18, 8/17, 11/16

교회는 현행 1년에 6회, 금요일 저녁 7-8시(금요집회 전)에 실시해오던 세례식을 1997년도 새해부터는 1년 4차례 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실시하기로 지난 11월 정기당회에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세례 전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모여 교육 및 문답을 실시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시간에 쫓기고 교통 체증으로 인한 지각 출석들의 경우도 많았을 뿐더러 30분 정도의 교육에 이어서 문답을 해야 함으로 특히 앞시간에 실시하는 교육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금요일 세례식이 금요일 집회 전이라 매우 바쁘게 진행이 되며, 현재 교육이 세례, 학습, 유아세례, 개종, 입교를 모두 같이 교육함으로 학습을 받는 사람이 6개월 후에 같은 교육을 받는 일이 있어 왔다. 이런 문제점들은 일찍이 지적되어 왔던 것인데 내년부터 개선하여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1년에 4차례(2월 16일, 5월 18일, 8월 17일, 11월 16일) 실시하게 되며 교육 시간도 늘려 총 4시간의 교육을 받고 문답을 별도로 하기로 했다. 교육 및 문답은 세례식이 있는 달의 첫째, 둘째 주, 세례식은 셋째 주 저녁 찬양예배 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도 세례반과 학습반을 분리하며 학습반은 기독교 개요, 성경개요, 구원론, 성도의 생활을, 세례반은 세례란, 교회론, 구원론, 성도의 생활을 네 시간에 걸쳐 교육하게 된다.

또한 중등2, 3부, 고등부, 특수부서(에바다부, 사랑부, 영어교육부의 외국인)도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수부서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자

예비신랑신부교육부 96-12기 수강생 모집

교회학교 예비신랑신부교육부(부장 송환창 장로)에서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건강한 가정을 꾸미고 행복한 부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약혼 중이거나 결혼을 준비 중에 있는 적령기의 남녀 성도들에게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니 많은 수강 참여를 바랍니다.

1. 교육기간(2개월 과정)
96. 12. 1(주일)~97. 1. 26(주일)
매주일 오전 10시 30분~12시 40분
2. 교육장소
교육관 208, 209호
3. 교육과목(강의 및 분반공부)
 - ① 성경적 결혼관
 - ② 부부의 심리 및 성격
 - ③ 건소한 혼수 준비
 - ④ 가정법률상식
 - ⑤ 가정의학상식
 - ⑥ 부부간의 대화
 - ⑦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 ⑧ 건강한 부부생활

체에서 판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처럼 세례식을 금요일에서 주일로 바꿈에 따라 우선 세례받기 전에 다시 확인하고 알아야 할 사항들을 충분히 교육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가장 큰 행사인 세례식이 온 교인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축하와 격려 속에서 당회장의 집례 하에 실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교회의 회원으로 정식 입회하는 세례자에게나 이를 지켜보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성도들에게 큰 의미가 있게 될 것이다.



성탄과 평화의 십자탑에 불 밝혀

구원과 참 평화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온 누리에 알리는 전방부대 십자탑 점등식이 시작되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1월 26일(화) 00사단 가평분에서 군전도회 회장 김재명 장로, 지도 현상민 목사 등 전도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등식을 갖고 철책선 너머 얼어 붙은 북녘땅에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전파되고 통일일의 그날이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군목수련회

70여명의 합동교단 군목 부부

지난 11월 25일(월)에 군목수련회가 우리 교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합동 교단 군목 부부 70여명이 함께 모여 군목의 역할 및 중요성, 군목의 업무 및 자질 등과 군목 사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군목으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부부가 함께 모여 군목 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잠시 잊고 함께 쉬며 새롭게 각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 군목수련회후 기념촬영)



선교지에 성탄선물을 보냅시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연말과 성탄절이 다가옴에 따라 해외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보낼 성탄선물과 성탄카드, 격려편지, 선교현금 등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선교사님 및 그 가족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각 부서, 기관, 회구와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 1996년 12월 1일(주일)
- 접수시간 :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 접수장소 : 시무국(총무과), 선교위원회(선교관 406호)
- 접수종류 : 성탄선물, 성탄카드, 격려편지, 선교현금, 기타.

(받으실 선교사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선교위원회 시무실(전화 552-8200) 교한 357번)



충헌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하나님의 상선벌악

(시편 37:32-40)

하나님은 선을 행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형벌을 주십니다. 오늘은 이것을 대조하며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1. 악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벌이 어떠합니까

(1) 악인의 계획을 아십니다

악인이 의인을 조사하되 그 목적은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의인을 죽일 기회를 찾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첫째, 의인이 사람들에게 칭찬 받고 존경받는 것이 미워서입니다. 둘째, 악인의 죄가 드러날까 봐서입니다. 의인들이 악인의 편을 들어주면 죄를 숨길 수 있겠는데 의인들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의인을 죽이려고 온갖 연구를 하고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다보신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합니다.

(2) 악인의 자취를 없애버리십니다

다윗이 젊어서부터 늙기까지 많은 사람을 보았는데 악한 사람의 세력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튼튼한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와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지고 찾아도 발견치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지날 때에"란 세월이 흐른 다음을 말합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가보니 그렇게 크고 무성한 나무가 뿌리조차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둘은 부서져도 모래가 남고 나무는 불에 타면 재가 되어 자취도 없어지고 맙니다. "땅 위의 권세는 10년 가히 힘들고 예쁜 꽃은 열흘 보기 힘들다"는 옛 글과도 같습니다. 꽃은 피면 떨어지고 달도 차면 기우는 것이 세상입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열 사람 백 사람 단결을 해도 죄를 범하는 사람끼리 한꺼번에 망합니다. 독일이 일본과 이탈리아와 하나가 되었지만, 악한 자들 편에서 앞잡이 노릇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망했습니다. 아무리 세력이 굉장한 사람도 때가 되면 망합니다.

2. 의인에게 베푸시는 상이 어떠합니까

(1) 의인을 정죄치 아니하십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권능의 손을 펴서 간섭을 하십니다. "안되겠다. 이제 더 보고만 있으면 손해가 너무 크겠다. 자! 이제 내 손이 손을 펴야 되겠다."

악한 사람의 권세가 아무리 당당해

도 바람 앞에 겨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팔이 임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도 마지막에 죄를 정할 수 없도록 의인인 것을 만인 앞에 공개해 주십니다. 악한 사람들은 의인에게 별별 흉악한 죄를 뒤집어 씌우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어 마지막 재판 때에 의인인 것을 공개하십니다. 이 때에 일시적으로 억울하게 잃어버렸던 명예, 재산을 하나님이 찾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나라의 면류관도 주십니다.

(2) 땅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바라" 악인들이 의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성도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잘사는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잘사는 것을 볼 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생활입니다. 세상을 내려다보면 날마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로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집니다. 돈에 초점을 맞추면 돈을 따라가게 되고 권세에 초점을 맞추면 권세를 따라가게 되며 향락에 마음이 끌리면 향락을 따라가는 개처럼 되고 맙니다.

"그 도를 지키라" 하나님을 바라본 다음에는 그 도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도를 지키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은 잠시도 쉬지 않고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 문이 좁고 길이 험하고 찾는 이가 적으니라" "문이 좁다"는 말은 죄를 벗어나고 가라는 말입니다. 죄의 짐을 다 걸머지고 가려고 하면 힘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 짐을 내려 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길이 험하다"는 말은 성도들에게 유혹이 많고 유혹을 물리치면 핍박이 오므로 그 길이 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유혹을 끊으려 할 때에 유혹하던 자가 미워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험한 길을 가는 고생과 같습니다. 그 길은 나 혼자 가면 외롭고 무섭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가주시므로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험하고 괴로운 길이라도 말할 수 없는 소망과 축복이 기다리므로 핍박과 환난이 두렵지 않고 면류관 받을 것을 생각하니 기쁘기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험한 길을 찬송 부르면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험한 길을 가는 고생과 같습니다. 그 길은 나 혼자 가면 외롭고 무섭지만 성령님이 함께 가주시므로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험하고 괴로운 길이라도 말할 수 없는 소망과 축복이 기다리므로 핍박과 환난이 두렵지 않고 면류관 받을 것을 생각하니 기쁘기만 합니다.



이라" 험한 길을 갈 때에 악한 사람은 그 길을 휘방하고 시기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며 의인을 들어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십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인심을 얻으며 자손이 잘 되고 영욕의 부자가 되며 천국을 영원히 소유하고 땅위에서도 권위있는 삶을 살게 되는 복을 말합니다. 아울러 악한 사람이 멸망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그 자손들이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땅 위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본문의 '완전한 사람'이란 정성을 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잘한 일이나 못한 일이나 과장 선전이 없이 정직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기로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며 화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므로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다음에는 사람끼리 화목해야 됩니다.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일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자기 부서에서 일하는 것은 좋으나 부서 간에 화목하지 못하면 안됩니다.

화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평안은 근심이 섞이기 쉽습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하겠지만 돈 속에 근심이 섞이고 지식이 많고 권세가 당당해도 그 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한 사람은 마음의 평안, 육신의 평안, 영혼의 평안, 영원한 천국의 평안을 누립니다. 이런 사람의 가정은 평안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는 평안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교회와 한국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남의 잘못은 너그럽게 용서하고 잘못된 일은 먼저 책임을 질 줄 알고 남에게 핑계하지 않는 화목을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 환난 때에 산성이 되십니다

자기의 힘으로 원수를 이기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한 사람이 악한 자에게 망신을 당하면 영광스러운 이름에 욕이 될까봐 의인을 끝까지 불드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구원의 근거는 튼튼합니다. 하나님이 넘어뜨리기 전에 의인을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환난을 당할 때에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인을 악한 사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상급을 주시고 성공하는 축복까지도 주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악을 만들어 내는 악의 조작자, 악인이 짠 각본대로 행동하며 앞잡이 노릇을 하는 악의 하수인, 처음에는 의로웠는데 세상을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믿음을 버리고 죄악에 물들어 버린 악의 감염자, 자기의 잘못은 권세와 거짓말 뒤에 숨겨 놓고 남의 잘못은 현미경으로 조사해서 광고하는 악의 사냥꾼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행악자를 향하여 분노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저주하고 분노하는 자는 그보다 더 악해진다고 했습니다. 신자는 이 함정에 빠지면 안됩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머거리, 병어리가 되고 오직 자기의 일에만 충실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전도하며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한국의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악한 자에 물들지 않고 악한 자의 앞잡이도 되지 말고, 오직 내 책임을 다 하다가 악한 자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 의인이 받는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 제2회 주부교양강좌를 결산하면서 ●

매회 80여명의 불신자 참여

관계 전도가 효과적이고 자연스런 복음 전도의 방법임을 확인

불신자와의 끈을 계속 이어가려는 후속조치를 강구중

제 2회 주부교양강좌가 끝났다. 불신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전도방법의 개발이란 측면에서 이루어진 본 강좌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접촉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전도에 관한 진일보한 면을 보여주었다.

과거의 모든 전도집회는 주로 교회에 불신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행사하였지만, 오늘날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불신자들을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주부교양강좌는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편안하게 만들어줌으로써 그들에게 교회에 대한 거부의식을 제거한 행사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같은 주부교양강좌에 대한 결산은,

1. 인원 분포에 대한 평가
2. 참석자 분포에 따른 평가
3. 강좌에 대한 만족도
4. 강좌의 성과
5. 강좌의 반성 순으로 정리하였다.

1. 인원 분포에 대한 평가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네 번에 걸친 각 강좌에 참석한 인원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강좌에 대한 전체적인 평균 참여 숫자는 325명이었다.

이에 대한 분포로는 첫째 본교회 교인의 참석 평균이 212명이었으며, 둘째 타교회 교인은 평균 37명, 셋째 불신자들의 참석 평균은 76명이었다.

이러한 참석률은 강좌가 시작되면서 많아지기 시작하였는데 첫날 강좌에 251명으로 시작되어서 마지막 강좌에서는 369명이 참석하여 계속적으로 증가한 추세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대한 원인으로는 전체적으로 본교회 교인들의 참여가 2회부터는 증가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이는 교회에서의 계속되는 홍보와 강좌에 대한 교인들의 관심이 함께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였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도 본래의 취지에 부응하는 불신자들에 대한 참여도는 4강좌 전체를 합하여 302명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루었으며, 이 중에는 같은 사람들이 반복참여하기도 하였지만 적어도 80여명의 불신자들이 교회와 접촉을 이루었다는 점에서는 주목할만 하

였다.

한편 이러한 인원 분포를 종합해 볼 때 불신자들이 스스로 찾아온 경우는 거의 드문 것으로 분석되며, 본교회 교인들이 참여하면서 함께 권하여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다(본교회 교인의 참석이 증가할수록 불신자들의 수도 함께 증가하였음).

따라서 이같은 주부교양강좌에 대한 결산은 본 교회 성도들의 깊은 관심과 홍보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있었기에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같은 행사에는 성도님들의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하겠다.

2. 참석자 분포에 따른 평가



참석자들의 분포는 첫째 연령대와 둘째 참석동기 등으로 나누어 보았다. 우선 참석자들의 연령층은 30, 40대가 주를 이루었으며, 50대와 60대가 약간 참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같은 연령의 분포는 앞으로의 전도 행사가 30-40대의 주부들을 공략하는 쪽으로 무게를 실을수록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게 한다.

둘째로 본교회 교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참석동기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이웃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친구나 선후배의 관계로 인해 참석하게 된 반면에 기타 친척이나 홍보를 통한 참석은 거의 미미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같은 불신자들의 참여는 본교회 교인들의 관심과 교회적인 홍보로 인한 교인들의 참여에 크게 좌우되는 모습이었다. 한편 참석자들의 대부분이 이웃이나 친구, 또는 선후배였던 것으로 살펴볼 때 본교회 교인들이 이웃과의 연대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었다.

3. 강좌에 대한 만족도

네 번의 강좌 중에 가장 유익하였다고 대답한 것은 대화기법이었으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은 자기관리 시간이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강좌의 제목을 보고 참석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 따른 만족도는 각 시간마다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가장 좋았다고 대답한 대화기법은 20-60대가 관심을 보일 수 있는 폭넓은 주제였던 반면에, 가장 만족도가 낮았던 자기관리라는 강의 내용이 20-30대를 중심으로 되어진 주제였기에 제한된 만족을 보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참석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을 잘

4. 강좌의 성과

가장 중요한 강좌의 성과 부분은 다음 4가지로 그 내용을 분석할 수 있었다.

첫째 불신자 및 타교인의 참석이 1회의 강좌에 비해 2배 이상이 증가하는 호황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이같은 참석의 분포는 불신자들에 대한 교회의 접촉점을 찾아 주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에 적극 부응하는 좋은 결과였다.

둘째 참석자 분포에 따른 분석에서 관계전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날은 직접 전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계전도가 매우 효과적이며 자연스러운 복음전도의 방법으로 확립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현재의 중현교회 성도들이 이웃이나 친구 또는 선후배들과의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생각할 때, 이같은 강좌를 통해 관계 전도는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강사들은 유명한 강사보다도 그 내용과 주제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강사 선정은 매우 신중하고도 간밀하게 연구되어 현재의 전도대상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요 주제를 선정해야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결과를 남겨 주었다.

넷째 교회의 지역 홍보면에서 좋은 시간이었으며, 본교회 성도들에 대한 재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 동안은 교회의 행사들이 본교회를 상대로 한 것인 반면에 주부교양강좌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한 행사였기에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봉사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5. 강좌의 반성

끝으로 주부교양강좌는 이상의 평가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아쉬움들을 남겨 주었는데, 이는 홍보에 대한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저조하였다는 점이다. 1회 강좌에 비해서 홍보에 따른 포스타, 홍보전단, 현수막, 방송, 신문 등의 홍보비 지출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었다. 이는 교인들의 전반적인 관심과 참여가 뒷전에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함께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들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 주었다.

이제 제2회 주부교양강좌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강좌에 참석했던 불신자들이 계속해서 교회와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전도위원회에서는 참석했던 불신자들에게 교회의 홍보물을 보내준단지, 혹은 서신을 계속적으로 교환함으로써 교회와의 끈을 연결해 놓으려는 후속조치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관계 전도에 관한 연구들이 계속되어서 전도에 관한 좋은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도위원회 제공)

분석하여 그에 합당한 주제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주제에 대한 의견에서는 현재와 같은 다양한 주제로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반면에 약 40% 정도는 한 주제로 깊이 있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여주기도 했다. 따라서 이같은 의견들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주제에 따라 방식을 달리하여 관심있는 주제들은 깊이 있게 연속적으로 다루어 준다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강좌가 이루어지는 시간으로는 현재의 오전 시간이 가장 좋았지만 오후 시간을 선호하는 소수의 견해도 있었다. 또한 강좌가 이루어지는 요일도 현재처럼 목요일이 가장 좋았다고 대답을 하여 본 강좌가 이루어진 시간과 요일에 대한 선정은 대단히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토막소식

▶ 영아부에서는 지난 11월 17일 추수감사절에 어린 아기들이 직접 고사리손으로 오곡백과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섭리하시며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배울 수 있었다.



▶ 장년1부에서는 오늘 구명신 전도사를 강사로 모시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 장년3부에서는 오늘 로마서 전장과 잠언 1~11장을 범위로 성경퀴즈대회를 실시한다. 한편 교사들은 금년 한해를 결산하는 교사기도회를 오는 12월 6일(금) 오후 6시 영아부실에서 갖는다.

▶ 이집트의 이준교 선교사가 지난 11월 29일 귀국하여 엑소더스 선교회의 회 해의총무단 회의에 참석하고 12월 7일 출국한다.

▶ 선교연구원 수료식이 오늘 오후 3시 베다니홀에서 있다.

▶ 교정(교도소)전도회에서는 오는 12월 6일(금) 오후 6시부터 칼빈홀에서 총회를 실시한다. 금년 한해의 활동을 마무리 하고 97년도 사업을 함께 구상하는 시간으로 교정 전도에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정기감사

감사위원회에서는 1996년도 하반기 정기감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에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12월 1일~15일
2. 대상부서 :
 - ① 96년도 상반기 감사 부서 전부
 - ② 96년 7월 1일~11월 30일 결산 부분
3. 구비서류 :

수입원장, 금전출납부, 영수증철, 시산표, 저금통장
4. 장소 : 감사위원회실 (선교관 404호)
5. 시간 : 매주일 오전 9시~오후 4시

직원모집

1. 모집부문
 - 가. 음영(여, 유경험자 22세 미만) 0명
 - 나. 정리(여성고졸, 22세 미만) 0명
 - 다. 사무(여성고졸, 22세 미만) 0명
 - 라. 설비(남, 30세 미만) 0명
2. 자격

세례교인으로 신앙이 돈독한 성도
3. 제출서류
 - 가. 이력서(사진 포함) 1통
 - 나. 주민등록등본 1통
 - 다.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1통
 - (기타 서류는 채용후 제출)
4. 서류제출 및 문의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 교환 402)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홍콩 김은태 선교사 ▶



주 안에서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시길 소원합니다. 고국은 이미 추운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줄 압니다. 이곳도 며칠 전부터 기온이 하강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아직은 낮에는 반소매의 여름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동안 입던 여름옷을 정리하여 넣고 긴소매 옷을 꺼내어 입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의 가을은 대부분이 겨울을 위한 난방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른 아침과 밤 시간에 집안에 머무는 때가 상당히 춥게 느껴집니다. 12월이 가까워 오니 주님 오신 성탄절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홍콩의 크리스천의 비율은 5%미만이지만 매년 성탄절의 분위기는 대형 네온사인들과 함께 대단히 화려하고 소란한 편입니다. 결코 성탄의 참 뜻과는 상관없이 번쩍이고 술렁입니다. 조용히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진정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성탄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감람인 목사님, 선교위원회의 장봉생 목사님, 노광현 장로님과 여러 장로님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기도의 후원과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저희를 기억하며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저희도 시시로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여름, 충현교회 단기선교팀의 헌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6박 7일의 짧은 여정 속에서 도착하자마자 시작된 선교 사역으로 몹시 힘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든 분들이 불편한 여건

속에서도 한결같은 열심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분담된 역할 속에서도 너무나 잘해 주었습니다. 김희수 목사님의 순수함과 복음의 열정, 그리고 은혜로운 설교는 저희 모두에게 귀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팀 리더이신 강철형 집사님의 모범적인 섬김과 헌신은 가장 값진 행동의 본이 되었습니다. 인형극과 성극에 수고하신 분들, 뒷 배경의 멋진 그림을 손수 그려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또 초청집회를 위한 한국 민속 음식 준비로 수고한 집사님들, 무거운 비디오 카메라를 메고 수고하신 집사님과 재정 및 행정을 맡으셨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찬양과 율동이 너무나 잘 준비되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목이 잠겨서 돌아간 집사님, 율동을 손수 창작해서 가르쳐 주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율동을 녹화해 주신 테이프를 지금도 보면서 저희 교회 자매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 율동을 인도하며 온 성도가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의 분위기도 더욱 은혜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수고의 열매라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병원 선교, 노인원 선교에도 예의 없이 그 율동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좋은 율동을 녹화해서 보내 주시면 현지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주 찬양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겁게 가져오신 많은 선물들을 주님과 여러분의 이름으로 전했고

홍콩의 중국 반환이 영적 각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아서 중국 교회를 방문하여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수고스럽게 제작한 비디오 테이프와 일일이 세어 보내 주신 사진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수고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끼쳤고 언어가 통하지 않았어도 많은 것을 가르쳐 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전도로 세 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으며 현재 두 분이 아주 착실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본 교회와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여름은 저희들에게는 참 바쁘면서도 즐거운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단기선교팀이 오기에 앞서,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구의 권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지나간 이야기도 하며 사랑을 나누고, 함께 먹고 웃는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며 기도로 교제하던 분들과의 만남이 어찌 그리 좋던지요. 충현의 한 가족임을 더욱 느끼며 결코 이방에 홀로 떨어져 있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또 한편으로 더 먼 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충현의 선교사님께도 이러한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현재 이곳 홍콩은 97년 7월 중국 반환을 앞두고 밀려 오는 중국의 강한 영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97년 7월 이후 홍콩의 초대 장관 후보를 선출하는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중국의 부총리가 중국 최고위 인사로는 처음으로 홍콩을 정식 방문하였고 그가 주재하는 후보 선출 회의가 전일 생방송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중국인에 의한 홍콩의 통치는 더 나은 홍콩의 변명을 가져올 것이라 역설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오직 이 역사적, 정치적 변화가 배금주의로 가득찬 철저한 세속 도시 이 홍콩에 새로운 영적 각성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홍콩의 장래와 더 나아가 중국의 장래가 우리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커다란 변화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위치를 지키며 기도로 홍콩과 중국의 내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우두각 장로회)는 교인들의 잦은 이동으로 수적 증가는 크게 없으나 초기와 달리 들쭉날쭉하던 교인들이 없어지고 거의가 다 고정적으로 출석을 하며 신앙의 내적인 진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애착과 귀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7년을 내다보면서 현지의 법 절차를 따라 교회를 법인 유한공사로 등록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등록비는 미화로 3,000불이 들 것 같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나면 저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을 초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현재의 미션 홈이 선교 훈련장으로 유용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던 한 부부 선교사(남: 미국인, 여: 홍콩인)가 저희 미션 홈에 머물고자 하는데 그러면 피차에 좋은 공동체 훈련의 시간이 될 줄 압니다. 가장 큰 소망은 충현교회의 젊은이 층에 중국 선교의 뜻이 있는 이들이 홍콩에 와서 언어 훈련과 선교의 훈련을 받고 저희들과 함께 중국인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드러져길 소원합니다.

96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서로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남은 시간을 더욱 알차게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실 제목은

1. 저희 부부가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며, 두 아들(성약, 이삭)의 좋은 신앙과 학업의 진보를 위해
2. 우두각 장로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 그리고 가정 복음화를 위해, 특별히
3. 저희들과 함께 사역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
4. 성령 충만한 전도 사역을 위해
5. 홍콩의 영적 부흥과 97년 7월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의 지속적인 사역과 더 큰 발전을 위해

1996년 11월 19일
김은태 선교사 올림